『한국사상과 문화』 제100집
한국사상문화학회 논문집(2019.12.31)

원효 글쓰기의 통불교(通佛敎)적 독창성

김 헌 선
(경기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Ⅰ. 머리말
Ⅱ. 원효 글쓰기의 통불교적 독창성
Ⅲ. 마무리

www.kci.go.kr

<논문요약>

원효의 독창성은 글쓰기에 있다. 글쓰기를 정밀하게 하면서도 문제를 크게 다루는 원대한 문제의식이 소중하게 작동하였다. 해외에 유학하지 않고, 해동신라에 머물면서 학문의 궁극을 탐구하고 가장 어려운 글쓰기를 시도한 인물이다. 어려운 것은 익숙하지 않음이며, 익숙하게 되면 천변만화의 비밀을 만들어낸다. 원효는 중복적인 글쓰기를 하지 않고 원용자재한 사상을 표현하면서 생사에 자재하는 글을 만들었다. 생사를 초월하지 않고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이면서, 하나가 아니면서 둘도 아닌 것을 억지로 표현하는 글쓰기의 생생한 표현을 즐겨 썼다.

그러므로 원효는 자신의 생각이 없이 주석을 하지 않았다. 주석학으로 볼 수 없다. 그 경전을 두루 휘어잡고 이 경전의 요체와 의미를 말하는데 자신의 창조력을 십분 발휘하였다. 같은 주석을 달았어도 왜 원효의 주석만 살아남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원효의 말이 설득력이 있고, 누가 보아도 자신의 말을 하면서 남의 말을 핵심적으로 꿰뚫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이었다. 자신의 장기를 발휘하면서 멋지고 선명한 글쓰기를 통하여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음이 드러난다.

원효의 창조력은 경전에서 주어진 생각을 넘어서서 당시 최첨단의 이론을 휘어잡고 다른 것과 쟁론하면서 쟁론의 쟁론을 넘어서는 포괄성을 주장하고, 아울러서 경전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물이 흐르듯이 명료한 글쓰기를 하는 것이 기본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경전의 핵심을 찾아서 정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였다.

원효의 창조력은 간명하면서도 복잡하고, 복잡하면서도 간명한 글쓰기를 하는 것이 기본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전의 다양한 면모를 북돋우고 경전의 이면을 사로잡아 생각의 폭을 확대하고 적실한 비유와 적절한 의미를 환기하는 글쓰기의 기교는 다른 이에게서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상이 앞서고 생각의 폭과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원효 사상의 독창성, 통불교, 통합논리, 통전불교, 이사철학.

www.kci.go.kr

Ⅰ. 머리말

원효(元曉, 617~686) 사상의 독창성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역대의 논사와 학자들이 독창성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이 독창성에 대한 해명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마도 그 연구사를 정리하려면 이 한 편의 글로도 부족하다. 원효 사상의 독창성은 주석으로 대신할 수 없다. 주석을 찾아내고 정밀한 연구를 해도 이 독창성의 실체는 잘 잡히지 않는다. 많은 논거를 찾아서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짓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연구의 출발점이기는 해도 도달점이 될 수 없다.

원효 사상을 받들어서 숭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원효의 사상을 높게 숭배하고 이를 동어반복하는 것은 앵무지언이며, 가까워서 췌언에 지나지 않는다. 창조를 부질없이 숭배하고 존중하는 말로 다하는 것은 허망한 짓이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를 수 없는 것을 미화하지 않고 창조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소중하다. 그것은 숭배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원효의 독창적인 글쓰기는 다른데 있지 않다. 사상의 창조를 새롭게 하면서 즐겁고 신명나는 말의 묘리를 터득하고 이치를 섬부하게 다루는 데서 찾는 것도 한 가지 방식이다. 한 가지 핵심적인 면모는 불교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의 구사와 함께 이를 튼실하게 규명하는 논리적인 고안과 설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효는 아주 글을 잘 썼던 인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원효 사상의 독창성을 찾아서 이를 새롭게 규명하려는 목적 아래 원효의 통불교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불교는 불교의 통합적인 안목과 이를 과시하는 여러 가지 하위 영역 문제를 다루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통합논리, 통전불교와 백가의 쟁명 화합, 격의불교, 공관론과 유식론의 통합 등을 다룰 예정이다.

www.kci.go.kr

통합논리를 신인명논리학과 화쟁의 방법을 통해서 입증하고자 한다. 통전불교와 백가의 쟁명 화합 등은 원효의 사상이 새롭게 열리는 것으로 특정한 글에서 찾아서 정리하여 가지고 온다. 격의불교는 고전적인 주제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특정하게 불교의 노장관련 면모를 찾아서 정리할 예정이다. 공관론과 유식론 역시 고전적인 주제이지만 원효의 글에서 어떻게 합쳐졌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원효의 저작에서 해당 대목을 찾아서 이를 연결하고 동시에 논리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이론적인 안목과 조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원효의 사상이 지니는 가치를 이러한 각도에서 새롭게 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연구 업적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원효의 문면을 철저하게 골똘하게 찾으면서 이를 입증하는 것을 핵심적인 방법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원효의 독창성은 글쓰기에 있다. 소간의 방식으로 크게 보고 거시적 문제의식을 잘 다루는가 하면, 동시에 정밀하게 추론하고 논리적 정합성에 입각한 글쓰기를 주밀하게 잘 쓰는 밀간의 방식도 전개한다. 휘뚜루마뚜루 쓰는 방식이 가장 긴요하다. 원효의 독창성이 글쓰기에 있으며, 글쓰기가 독창적 사고를 전개하는 핵심적 수단이 된다. 논리적 그물의 격자가 세세하고, 그물의 격자를 운용하는 사고의 폭과 깊이가 섬부하다.

첨단의 논리학을 공부하면서 해외의 학문이 아닌 국내의 현지 학문을 중시하였다. 우리 땅 신라에서 학문을 일으키는 문제의식이 세계를 하나로 휘어잡는 방법으로 발전하였다. 여래와 불보살이 간결하게 말하는 것을 정밀하게 은유하면서 이를 확대하는 방법은 여전히 수수께끼의 것이기는 해도 비유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의 전개는 논리를 넘어서는 논리를 개척하기에 이르렀다.

『금강삼매경론』 상권 무생행품에서 아마륵과 비유에서 사불에 이어 팔불을 해명하면서 불생불멸의 이치를 팔불로 휘갑하는 것은 역대 조사에서 이룰 수 없었던 바이다. 원효의 독창성이 빛나는 대목은 곳

www.kci.go.kr

곳에서 발견된다. 한 생을 창조로 일관한 것은 통불교적인 관점의 견해를 표방하면서 절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이유를 논리, 통전불교, 화백가쟁명, 격의불교, 공관론과 유식론의 통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Ⅱ. 원효 글쓰기의 통불교적 독창성

원효는 통불교를 실천하고자 힘을 썼다. 나라가 안으로 갈라졌으므로 이를 통활하게 합치는 모색을 하였다. 원효는 대당국에 가지 못하였으나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신라 불교를 위치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세계를 주도하는 통합적 관점의 논리를 수립하려고 힘을 썼다. 그 저작이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것을 그러한 각도에서 이해해야 한다. 원효는 불교의 역사 속에서 불교만이 아니라 불교에서 얻어진 역사적 경이와 융합의 원리를 익히고 이를 발현하는데 힘을 쏟았다.

원효의 통불교는 화쟁의 사상, 여러 경전에 대한 주석과 논쟁점의 서술, 남이 이를 수 없는 서술의 독창성 등으로 말하는데 이 말은 틀리면서 맞았다. 그러한 논리와 주석, 사상의 서술은 독창성으로 집약되고 이를 우리는 통불교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논하면서 하나로 귀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통불교의 관점을 선택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고 논리적으로 귀일되면서 새로운 사상을 열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원효의 통불교는 네 가지 각도에서 문제된다. 원효가 취한 불교의 전체성과 학문적 쟁점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네 가지는 통합논리, 통전불교, 격의불교, 그리고 특유한 학문의 논리와 방법을 학문적인 창조로 이어가는 것 등으로 압축·요약되고 세부적으로 통괄된다. 통합논리는 원효 특유의 사고방식을 구체화하는 수단이 된다. 이것을 달리 여러 가지로 일컫기도 한다. 화쟁논리, 창조논리, 생극논리 등이 있다. 통전

www.kci.go.kr

불교는 여러 가지 불교의 핵심적인 장전을 모두 합쳐서 구축하는 논리를 경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격의불교는 도가인 노장의 사상과 불교의 통섭이나 융합을 말한다. 아울러서 학문사적인 방법론의 시각을 잃지 않는 것이 요점적인 방법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 통합논리

논리는 철학의 근간이고 사고의 저변이다. 논리는 진리나 진리의 전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통합논리는 통괄적이고 포괄적인 전제를 달성하는 원효 특유의 사고를 이르는 말이다. 원효 특유의 사고는 쟁점을 조정하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나로 일컫는 것으로 깊은 모색과 성찰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판비량론』과 같은 저작의 모색을 통해서 이룩되었다. 비량의 핵심을 달성하기 위한 인명논리학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서로 다른 주장과 논리식을 점검하면서 당시로서는 최선이자 최신의 방법론을 모색하고 원용하려고 하였다. 오지작법의 구인명과 삼지작법의 신인명을 도입하여 비판하고 견주어서 진리의 결과를 헤아리는 방법론을 구사하였다. 신인명의 삼지작법으로 종인유(宗因喩)를 활용하여 “소크라테스는 죽는다(宗)-(소크라테스는) 사람이기 때문에(因)-마치 공자와 같이(喩), (모든 사람은 죽는다)” 등과 같은 것을 주장하는 논리를 편 바 있다.

인명논리학은 일정하게 활용되다가 학문적 유행과 경향이 바뀌면서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다. 동아시아 전체의 학문적인 방법론이자 논리로 채택되었으나 그것이 일정하게 쓰이지 않으면서 퇴조된다. 인명논리학의 전개가 운명을 달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원효는 새로운 모색을 한다. 특정한 논리의 습득과 활용을 벗어나서 불교의 근본 주장과 쟁점을 타개하는 방법론과 논리를 모색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십문화쟁론』을 거쳐서 이룩된 특정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서

www.kci.go.kr

문을 보자.

> 十門論者 如來在世 已賴圓音 衆生等...雨驟 空空之論雲奔 或言我是 言他不是 或說我然 說他不然 遂成河漢矣 大...山而投廻谷 憎有愛空 猶捨樹以赴長林 譬如青藍共體 氷水同源 鏡納萬形 水分...通融 聊爲序述 名曰十門和諍論[1)]

열 가지 부문의 논쟁이 있었다고 전한다. 여래가 세상에 있을 때에는 일승원음에 의존하였으나 중생 등의 둔근기로 달라졌다고 한다. 헛된 생각이 생겨나 공에 대한 논리가 소나기가 모이듯이 하고 공공연한 논의가 구름이 내닫듯 하였다고 판단한다. 혹은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하고, 나는 그러한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논쟁이나 주장이 마치 은하수와 같이 길게 뻗쳤다고 한다.

크게 산에 들어서 돌이켜 계곡을 향하는 것처럼 있음을 증오하고 없음을 사랑함이 마치 나무를 버리고 울창한 산림에 이른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를테면 청과 남빛은 한 가지 몸체에서 나오고, 얼음과 물은 한 가지 근원한다. 거울은 만물의 형태를 가납한다. 통괄하여 융합하면 다만 서를 짓는다. 이름을 십문화쟁론이라고 한다.

최범술에 의해서 이룩된 재구에서 십문에 대한 논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현된 바 있다. 있음과 없음 등을 비롯하여 열 가지 부문에 깊은 통찰을 통해서 모든 것의 주장을 하나로 귀일하고 이들의 원용하게 통섭하면서 확실하게 화쟁의 논리를 구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주장이 동일한 것이며, 청색과 쪽빛이 근원은 같으나 달라지고 얼음과 물은 하나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같은 것이 다른 것이고, 다른 것이 같은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강화하는 수단이자 방법론이 되는 점을 볼 수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화합의 방법론을 창조적인 이론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통불교의 서막을 장식한다. 이미 『대승기신론소별기』에서

1) 元曉, 『十門和諍論』 序文.

www.kci.go.kr

찾아졌으나 이 방법론을 더욱 활용하면서 자신의 창조적인 논리를 생극의 논리로 가시화하는 작업을 시도하게 된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발현되어 완성되는 것이 『금강삼매경론』에서 나타난다. 화합의 방법과 통일을 꾀하는 방법론이자 철학, 세계관적 논리의 통불교 논리가 완성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대의의 서두를 본다.

第一述大意者 夫一心之源 離有無而獨淨 三空之海 融眞俗而湛然 湛然 融二而不一 獨淨 離邊而非中 非中而離邊 故不有之法 不卽住無 不無之相 不卽住有 不一而融二 故非眞之事 未始爲俗 非俗之理 未始爲眞也 融二而不一 故眞俗之性 無所不立 染淨之相 莫不備焉 離邊而非中 故有無之法 無所不作 是非之義 莫不周焉 爾乃無破而無不破 無立而無不立 可謂無理之至理 不然之大然矣[2)]

한 마음의 근원과 삼공의 바다에 대한 논리적 관련을 체계적으로 운위하면서 이를 쉽고 간명하게 정리하여 말한다. 일심과 삼공,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궁극 등을 안팎으로 연결하면서 있음과 없음, 청정과 부정을 마음으로 연결한다. 일심의 근원은 있음과 없음을 부정하고 청정과 부정을 떠나서 홀로 깨끗하다고 하였다. 한 마음의 근원은 삼공의 바다와 관련이 있다. 삼공의 바다는 진제와 속제로 갈라져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서 크고 맑다고 하였다. 작은 것에서 발원하여 우주 전체의 만유가 진과 속으로 아울러져 있다. 이 분별을 극복하고 크게 하나로 하는 통괄이 가장 소중한 통합임을 강조한다.

크게 하나가 되었으므로 이를 매개로 삼아서 둘을 아울렀으면서도 하나가 아니고, 있음과 없음을 여의었으므로 이를 매개로 삼아서 양변의 가장자리를 떠났으면서도 가운데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크게 전개하고 있다. 이변이비중(離邊而非中), 비중이이변(非中而離邊)을 통해서 있지 않음의 법이 없음의 머무르지 않으며, 없지 않음의 상이 있음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있음과 없음의 부정과 관계를 확고하게

2) 元曉, 『金剛三昧經論』 述大意.

www.kci.go.kr

한다. 불일이융이(不一而融二)와 융이이불일(融二而不一)의 논리적 매개를 통해서 참되지 않음의 일이 속됨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속되지 않음의 이치가 참됨이 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법과 상, 이와 사를 부정하고 관계를 맺게 하여 있음과 없음을 여읜 것과 참과 속됨을 아우르는 실제를 더욱 부정하고 화합하여 차원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진속의 성품과 염정의 형상이 그렇게 맺어지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이 세우지 않은 바가 없고 갖추지 않는 바가 없다고 하면서 삼공과 일심의 역동적인 창조력을 구현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창조논리로 생극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가장자리를 여의고 가운데가 아니므로 유무의 법은 짓지 않는 바가 없으며 유무의 법은 짓지 않는 바가 없고 시비의 뜻을 두루 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다. 일심과 삼공의 비유와 매개가 이처럼 격파하면서 격파하지 않음이 없고 수립하면서 수립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다.

마침내 이렇게 된 바를 무엇이라고 해야 할 것인지 일심과 삼공, 유무와 진속, 가장자리와 가운데, 둘과 하나, 내외와 표리 등이 서로 깊게 연결되어서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둘은 작동하고 하나는 성취하고 하나는 다시 근원적으로 없음으로 이루어지면서 시비분별을 넘어서는 역동성을 구현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된 총괄적인 논리의 결론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완성하면서 이를 이치 없음의 지극한 이치, 그러하지 않음의 크게 그러함이라고 하는 비유와 역설을 들어서 이를 명명한다.

가명의 방법론을 드러내기 위한 고육의 방편이 이렇게 마련되었다. 이치가 없음은 언어로 드러낼 수 없는 것이고, 지극한 이치라고 하는 것도 언어로 드러낼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궁극적으로 화합하고 달리 이를 말이 없으므로 이를 억지로 언명하여 무리지지리(無理之至理)라고 하며 같은 방법으로 불연지대연(不然之大然)이라고 이름한다. 가명의 방법으로 작명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가명 이상의 가명,

www.kci.go.kr

언어의 역설로 일심과 삼공, 금강삼매의 경지를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나가르주나의 논리는 공관논리이다. 이 논리는 0과 1, 그리고 ∞를 구조적으로 결합하면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기본적 특징이다. 없음과 궁극의 하나, 무한대로 많은 것들을 중심으로 이를 구성해 공관논리를 제창하였다. 원효는 이에 대해 다른 논리를 설정하고 발전시킨다. 일심과 삼공, 있음과 없음, 나라의 둘의 관계, 가운데와 가장자리의 변곧 중심과 주변을 서로 연결하였다. 그러면서 하나와 둘, 가운데와 가장자리를 연결하여 둘을 아울렀으면서도 하나가 아니라고 하고 가장자리를 떠났으면서도 가운데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다.

왜 이러한 논리를 활용하였는가가 심각한 문제이다.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세 가지가 가능하다. '이다', '아니다', '이면서' 등이 그것이다. '이다'는 형식 논리이고, '아니다'는 부정 논리이고, '이면서'는 창조 논리이다. 원효는 둘의 문제를 심각하게 문제 삼았으므로 이를 "융이이불일(融二而不一)"이라고 하는 논리를 구현한다. 이것은 이면서를 극대화하면서 둘의 관련을 창조적으로 연결한다. 불교의 부정논리를 활용하면 '불일이불이(不一而不二)'이라고 부정논리와 관련한다. 이는 달리 '일이이(一而二)'라는 것과 관련된다. 하나가 아니면서 둘이 아니다의 불교논리를 응용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하나이면서 둘이다의 유교논리와 연관된다.

그리고 둘을 아울렀다고 하였으며, 동시에 하나가 아니라고 하므로 둘이다. 둘을 아울렀으면서도 둘이라고 하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는 셈이다. 둘을 아울렀으니 하나이고 하나가 아니니 여전히 둘이 된다. 가장자리를 떠났으니 가운데이나, 가운데가 가운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자리의 변과 가운데의 중심이 깊은 연관성을 가지면서 중심과 부분이 서로 포괄하고 갈라져 있다. 그것이 원효의 독창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다.

2. 통전불교와 화백가지이쟁의 화합

www.kci.go.kr

원효는 총괄적이고 통합적인 논리를 구사한다. 그러한 것을 총괄하는 총합적인 논리를 구현하는 것으로 통전불교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생각을 보이고 있다. 통합논리에 이어서 통전불교가 긴요한 구실을 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어느 경전, 어떠한 말을 담은 경전이든 핵심적인 사상이 집약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경전 하나를 두고서도 그러하지만 통전불교의 이상을 집약하는 생각이 골고루 발달하고 있으며 전개가 신명나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열반경』의 종요를 다루는 것에서 이에 대한 생각을 전개한 대목이 있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종요는 주석의 하나 방식이다. 종요는 이치의 본체와 활용을 하나로 일컫는데서 유래하였다. 전개와 종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며, 원효가 이를 잘 활용하는데서 유래된다. 종은 나누어서 전개하는 것이고, 요는 그 핵심을 이르는 요체이다. 『열반경종요』에서 이러한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으므로 이 경전의 예증을 들어서 이를 해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 今是經者 斯乃佛法之大海 方等之秘藏 其爲敎也 難可測量 良由曠蕩無涯 甚深無底 以無底故無所不窮 以無涯故無所不該 統衆典之部分 歸萬流之一味 開佛意之至公 和百家之異諍[3]

열반경에 대한 말이면서 방등불교의 핵심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이것이 긴요하다. 부처가 죽음의 임박하여 열반에 들면서 가르치는 내용이니 그것은 경전의 막바지 내용이고 여태껏 했던 것의 총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큰 바다라고 하였으며, 방등불교의 비밀스러운 창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열반에 이르러서 말하는바 가르침의 내용은 가히 헤아리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동시에 참으로 넓게 탁 트이고 가이 없고 매우 깊어서 바

3) 元曉, <<涅槃經宗要>> 大意

www.kci.go.kr

닥이 없다고 하였다. 바닥이 없으므로 궁극적이지 않음이 없고, 동시에 가이 없으므로 갖추지 않음이 없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부처의 가르침이고 열반에 이르는 부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전과 경전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많은 경전의 말씀이 워낙 방대하고 경전마다 경전의 종요와 요체가 다르거나 같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전의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뭇 경전의 부분을 통괄해 만 가지 흐름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한 가지의 맛으로 귀일하고, 본래 부처가 말한 바의 뜻의 지극한 공변된 것을 들어서 백가의 다른 말로 다투는 주장을 화합해야 한다고 하였다.

경전의 부분이 전체가 되고 부처의 본디 뜻을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다르게 해석하여 주장이 난무함을 하나로 귀일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조화롭게 고르게 하는 것은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전의 으뜸 정수만을 모아서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경전의 전체와 부분, 경전의 최종인 뜻을 알아차리는 것이 핵심을 전제하고 있다.

> 遂使擾擾四生 僉歸無二之實性 蓍蓍長睡 並到大覺之極果 極果之大覺也 體實性而亡心 實性之無二也 混眞妄而爲一 旣無二也 何得有一 眞妄混也 孰爲其實 斯則理智都亡 名義斯絶 是謂涅槃之玄旨也.[4]

마침내 온갖 사생으로 하여금 둘이 아닌 실다운 본성으로 돌아가게 하고, 어두운 긴 잠에서 아울러서 대각의 극과에 도달하게 한다. 극과의 대각은 실다운 성을 체달하여 망령된 마음과 실다운 본성이 둘이 아니라고 하였다. 진(참됨)과 망(망령됨)이 혼융하니 하나가 되고, 이미 둘이 아니니 어찌 하나가 됨을 얻을 수 있다. 참됨과 망령됨이 혼융하므로 무엇을 실이라고 할 것인가? 이러한 즉 이치와 지혜가 모두 잊고

4) 元曉, 『涅槃經宗要』 大意.

www.kci.go.kr

있으며 명과 뜻이 끊어졌으므로 이것을 일러서 열반의 그윽한 뜻이라고 한다.

통전불교의 핵심은 이치를 따지는 것에 있고, 경전의 부분과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것에 있다. 다른 주장을 핵심적으로 파악하여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바로 통전불교의 요점이다. 무이의 실성과 혼진망이위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무이이위일(無二而爲一)'과 '위일이무이(爲一而無二)'의 논리에 입각하여 혼진망과 실성의 본질을 아는 것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금강삼매경론』과 같은 것에서 보이는 원리와 이치를 터득한 것과 같은 구조임을 알 수 있다. 혼진망의 핵심을 들어서 실성과 망심의 근간을 서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진망이 둘이 아니면서 하나가 되는 점을 깊게 고려하고 논지를 전개한다. 이치와 지혜를 잃고 명의가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열반의 핵심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 격의불교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격의라고 하는 말을 원론적으로 협의의 개념에서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괄적으로 사상의 핵심적인 것들이 충돌하면서 빚어낸 사고의 복합과정으로 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가와 불교를 하나로 아우르는 전통을 구현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의 경전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이를 발현하고 운용하는 방법으로 격의를 구현하는 것을 활용하고 있다.

然旣無有二 何得有一 一無所有 就誰曰心 如是道理 離言絶慮 不知何以目之 强號爲一心也 言是二種門皆各總攝一切法者 釋上立中是心卽攝一切世間出世間法 上直明心攝一切法 今此釋中顯其二門皆各總攝 言以是二門不相離故者 是釋二門各總攝義 欲明眞如門者染淨通相 通相之外無別染淨 故得總攝染淨諸法 生滅門者別顯染淨 染淨之法無所不該 故亦總攝一切諸法 通別雖殊 齊無所遣 故言二門不相

www.kci.go.kr

離也 總釋義竟[5](그러나 이미 둘이 있지 않은데 어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일도 있지 않은 바가 없는데, 나아가 무엇을 심이라고 말할 것인가? 이와 같이 도리는 말을 떠나고 생각을 끊은 것이므로 무엇으로 이름 지을지를 몰라서 억지로 이름을 붙여서 일심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문이 모두 각각 일체법을 총괄한다'고 하는 말한 바는 위에 있는 입의분 가운데서 '이 마음이 바로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포괄한다.'고 함을 해석한 것이다. 위에서는 바로 '마음이 일체법을 포괄함'을 밝혔으나, 이제 이 해석분 가운데에서는 '두 문이 모두 각각 총괄함'을 나타내었다. '이 두 문이 여의지 않기 때문이다'고 한 것은 두 문이 각기 총괄한다는 뜻을 해석한 것이다. 이는 진여문은 염정의 통상이며, 통상 밖에 별다른 염정이 없기 때문에 염정의 모든 법을 총섭할 수 있음과 생멸문은 각기 염정을 나타내어 염정의 법이 모두 포함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또한 일체의 모든 법을 총섭함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통상과 별상이 비록 다르기는 하지만, 다 같이 함께 모두 보낼 수 없었으므로 '두 문이 서로 여의지 않았다'고 말한다. 총괄적으로 뜻을 해석함을 마친다.[6])

이 대목은 일심이문(一心二門)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의 이문을 이른다. 진여는 있는 그것대로의 진여를 말한다. 일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함에도 진여의 본체를 나누어서 본다면 그것은 생멸문으로 가를 수 있다. 원효의 주석이 서로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진여문과 생멸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여 이렇게 길게 글을 썼다. 수는 주석이고 주석을 하자니 이 경전의 여러 경전의 관련성을 드러내고 있음이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원효의 주석 방법에 경전의 해석을 격의의 방법으로 많이 쓰고 있는 점이다. 가령 위의 주석 가운데 첫 번째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도가에서 흔하게 활용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보이고 있다. 원효의 주석에서 이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도가의 언어와 어법, 그리고 논리로 풀어가는 것을 많이 확인하게 된다. 다음의 구절이 이를 말한다.

---

5) 元曉, 『大乘起信論疏』 第一卷.
6) 은정희 역주, 『대승기신론소별기』, 일지사, 1991, 참조.

www.kci.go.kr

有物混成 先天地生 寂兮寥兮 獨立而不改 周行而不殆 可以爲天下母 吾不知其名 字之曰道 強爲之名曰大 大曰逝 逝曰遠 遠曰反 故道大 天大 地大 人亦大 域中有四大 而人居其一焉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7](한 물건이 혼성하여 천지보다 앞에 생성되었다. 고요하여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아 홀로 독립하여 변하지 않고, 두루 행해져도 다하지 않으므로 가히 천하의 어머니라고 할 만하다.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므로 도라고 이름하고 억지로 이를 일러서 광대하다고 한다. 광대하면 끝이 없어서 다할 줄 모르고, 다하지 않으면 아득해서 분간할 수 없으며 아득하면 하나로 돌아간다. 그르므로 도는 위대하고 하늘도 위대하고 땅도 위대하고 왕 또한 위대하다. 그 안에 네 가지의 큰 것이 있는데, 왕은 그 가운데 하나에 거처한다. 사람을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노자의 말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데 억지로 이름을 불러서 이를 도라고 하고 억지로 광대하다고 하는 것이 요점이다. 억지로 이름을 짓는 방식에서 거의 같은 말과 언어를 사용하고 언어의 무력감을 말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언어의 부족한 면모를 인정하고 이름을 강제로 지어서 이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언어의 활용을 통해서 우리는 노자와 불교의 논리와 언어 사용에 공통점이 드러나는 것이 확인된다. 그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언어의 관념을 그렇게 여기는 것 자체가 소중한 전례를 이룩하고 있다.

[海東疏] 然夫大乘之爲體也 蕭焉空寂 湛爾沖玄 玄之又玄之 豈出萬像之表 寂之又寂之 猶在百家之談 非像表也五眼不能見其軀 在言裏也 四辯不能談其狀 欲言大矣 入無內而莫遺 欲言微矣 苞無外而有餘 引之於有 一如用之而空 獲之於無 萬物乘之而生 不知何以言之 强號之謂大乘.

[別記] 其體也 曠兮 其若太虛而無其私焉 蕩兮 其若巨海而有至公焉 有至公故動靜隨成 無其私故 染淨斯融 染淨融故 眞俗平等 動靜成故 昇降參差 昇降差故 感應路通 眞俗等故 思議路絶 思議絶故 體之者乘影響而無方 感應通故 祈之者超

7) 『老子』 第二十五章.

www.kci.go.kr

名相而有歸 所乘影響 非形非說 旣超名相 何超何歸 是謂無理之至理 不然之大然也.[8]

논법을 모두 보면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자의 말이나 여기에 제시된 말이 다르지 않다. 그것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일한 어법이나 논리를 구현한다. 원효가 소나 별기를 통해서 격의를 실험하고 구현하고 있는 점에 주목을 요한다. 격의불교의 전통, 노장을 불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각성의 방식이며 새로운 전통을 수립한 견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 같다.

4. 공관론과 유식론의 쟁론을 극복하여 이사철학으로 전환을 창조한 논리와 사상

원효는 논쟁을 중시하고 주장과 주장이 난무하는 것에 대한 깊은 천착을 했던 인물이다. 불교사의 큰 흐름 속에서 중관론과 유식론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으며, 서로 용인하지 않고 격파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다. 원효는 이 점을 간파하고 이 주장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지 깊은 시름과 모색을 한 바 있다. 원효가 별기에서 이를 핵심적인 쟁점으로 삼아서 논란을 한 바 있으므로 이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別記 其爲論也 無所不立 無所不破 如中觀論十二門論等 徧破諸執 亦破於破 而不還許能破所破 是謂往而不徧論也 其瑜伽論攝大乘等 通立深淺判於法門而不融遣自所立法 是謂與而不奪論也 今此論者 旣智旣仁 亦玄亦博 無不立而自遣無不破而還許 而還許者 顯彼往者往極而徧立 而自遣者 明此與者窮與而奪 是謂諸

8) 元曉, 『大乘起信論疏』 第一卷.

www.kci.go.kr

論之祖宗 羣諍之評主也[9])(그 논의 됨됨이가 세우지 않는 것이 없으며, 깨뜨리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데 "중관론(中觀論)"과 "십이문론(十二門論)" 같은 것들은 모두 집착을 두루 깨뜨리며 또한 깨뜨린 것도 깨뜨리되, 깨뜨리는 것[能破]과 깨뜨림을 당하는 것[所破]을 인정하지 않으니, 이것을 보내기만 하고 두루 미치지 않는 논이라고 말한다. 또 "유가론(瑜伽論)"과 "섭대승론(攝大乘論)" 같은 것들은 깊고 얕은 이론들을 온통 다 세워서 법문(法門)을 판별하였으되, 스스로 세운 법을 모두 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을 주기만 하고 빼앗지는 않는 논이라고 말한다. 이제 이 "기신론"은 지혜스럽기도 하고 어질기도 하며, 깊기도 하고 넓기도 하여, 세우지 않는 바가 없으면서 스스로 버리고, 깨뜨리지 않는 바가 없으면서 도리어 인정하고 있다. 도리어 인정한다는 것은, 저 가는 자가 가는 것이 다하여 두루 세움을 나타내며, 스스로 버린다는 것은, 이 주는 자가 주는 것을 다하여 빼앗는 것을 밝힌 것이니, 이것을 모든 논의 조종(祖宗)이며 모든 쟁론을 평정시키는 주인이라고 말한다.[10])

중관론과 유식론을 마명의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 위에서 그 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말한다. 마명의 언설은 세우지 않는 것이 없고 격파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중관론은 격파를 능사로 하는 논리를 자랑한다. 심지어 집착하는 바를 격파하고, 격파한 것을 다시 격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논리가 깨뜨리는 것과 깨뜨림을 당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한계점이 있어서 이를 보내기만 하고 두루 보내지 않는다고 하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중관론이 논리적 엄정성에 의해서 격파를 능사로 삼고 남의 논리를 보내기만 하였지 이를 곧 자신의 논리를 두루 따르도록 하지 못하는 병폐가 있음을 지적한다. 동시에 논리를 강하게 하면서 격파만을 능하게 하고 여지를 갖지 않는 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자신의 주장만 급급하게 완벽하게 수립하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 남이 주장하는 바가 이를 수긍하고 이를 따르도록 하는데 능사가 아님을 한

9) 元曉, 『大乘起信論疏』 第一卷.
10) 은정희 역주, 『대승기신론소별기』, 일지사, 1991 참조.

www.kci.go.kr

계적으로 말하는 것에 요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유가론 또는 유식론은 모든 것을 섬세하게 파헤치면서 모든 것을 세세하게 수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유경무식에서 말하는 5식, 6식, 7식, 8식, 9식 등의 문제를 점검하면서 이들이 구성하는 논리를 정밀하게 체계적으로 관철하면서 이들의 관련을 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것을 원효는 스스로 세운 법을 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유식론이 주기만 하고 빼앗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말하는 장점과 단점을 말하고 있다.

마명의 『대승기신론』은 바로 이 지점에 문제가 있음을 간파하고 논리적인 설복과 두루 포괄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원효가 쟁론의 역사 속에서 격파와 수립이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논을 보내기만 하고 두루 미칠 수 있는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였음이 드러난다. 이 기신론이 지혜롭기도 하고 어질다고 하는 성격을 강조하면서 명확하게 공관론과 유식론을 핵심적으로 원용하면서 극복하고 있다.

기신론을 지혜롭고 어질다고 하였으니 왜 그런가 하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서 깊고 넓음을 강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세우지 않는 바가 없으면서 스스로 버리고, 깨뜨리지 않는 바가 없으면서 도리어 인정한다고 하였다. 도리어 인정하므로 논파되어 가는 것이 두루 세움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고 스스로 버린다고 함은 주는 것을 다하여 빼앗는 것을 말한다고 보인다. 이 말은 극단은 서로 통하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마명의 저작은 이러한 국제적인 역사, 통불교의 역사 속에서 값어치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기신론이 제론의 조종이 되고 모든 논쟁을 평정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 기신론의 가치를 이러한 각도에서 해명하면서 논리적인 문제의 쟁패를 중시하지 않고 서로의 논의가 어떠한 각도에서 궁극적으로 다하여 만날 수가 있는지 하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다.

www.kci.go.kr

쟁론을 화합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귀일시켜서 새로운 창조를 이어가는 것은 원효의 특장이면서 마명의 저작과 같은 것을 두루 탐독하고 그것의 특징이 무엇인지 논하면서 얻은 결과임을 다시 생각하여야 한다.

원효는 해동소에서 동일한 대목의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신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마명의 『대승기신론』의 표종체에 대한 해동소에서 가장 창조적인 발언을 하고 불교학의 본질을 통불교의 창조적인 논리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점에서 논쟁의 근본을 해결하고 후대에게 새로운 지혜의 방편을 열어 보이고 있음이 드러난다.

海東疏 此論之意 旣其如是 開則無量無邊之義爲宗 合則二門一心之法爲要 二門之內 容萬義而不亂 無邊之義 同一心而混融 是以開合自在 立破無礙 開而不繁 合而不狹 立而無得 破而無失 是爲馬鳴之妙術 起信之宗體也 然以此論意趣深邃 從來釋者尠具其宗 良由各守所習而牽文 不能虛懷而尋旨 所以不近論主之意 或望源而迷流 或把葉而亡幹 或割領而補袖 或折枝而帶根 今直依此論文屬當所述經本 庶同趣者消息之耳 標宗體竟[11](이 기신론의 뜻은 이미 이와 같다. 펼쳐보면 무량무변한 뜻으로 종체를 삼고 합쳐보면 이문일심의 법을 요체로 삼는다. 이문 안에 만 가지의 뜻을 용납하면서도 산란하지 않고, 무변의 뜻이 일심과 같아서 혼용하고 융섭되어 있다. 이로써 개합이 자재하고 입파가 무애하다. 펼치면 번다하지 않고, 합치면 협소하지 않다. 수립하면 얻는 것이 없고 깨트리면 잃는 것이 없다. 이것이 마명의 묘한 술책이고, 기신론의 종체이다. 그러나 기신론의 의취가 심원하고 아득하여 종래의 주석가들이 그 종체를 갖춘 사람이 드물다. 이것은 진실로 각자 익힌 바에 고수하고 문장에 끄달려서 마음을 비워서 주지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논주인 마명의 뜻에 근접하지 못한 까닭이다. 어떤 논자는 근원을 바라보면서 지엽말단적인 지류에서 헤매고, 어떤 논자는 잎사귀를 잡고서 줄기를 잃으며, 어떤 논자는 옷깃을 잘라서 소매에 붙이고, 어떤 이는 가지를 잘라서 뿌리에 두르기도 한다. 이에 기신론의 문장에 곧게 의존하여 서술된 경전의 본문에 귀속시켜 배당하였으니 무릇 취지를 같이하는

11) 元曉, 『大乘起信論疏』 第一卷.

www.kci.go.kr

사람은 참작하기 바랄 따름이다. 종체를 드러냄을 마친다.[12])

원효의 글쓰기가 신이 나고 선명하게 논지가 살아나면서 자신의 독창성을 한껏 드러내는 것이 확인된다. 기신론의 여러 주석서를 두루 포괄하고 마명의 논지가 무엇인지 알아내면서 이들을 한껏 확장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자신의 특장인 두루 견해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기신론의 논사와 자신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논주인 마명의 생각이 무엇인지 겨루면서 핵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남을 볼 수가 있다. 원효의 핵심적 발상이 드러나 있으면서 다른 이와의 견해를 어떻게 같고 다르게 하는지 포괄적인 논의의 언사와 비유를 만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쟁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명문이 되었다.

원효가 주석을 하고 견해를 달리하거나 생각의 진전이 있으면 소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논의를 한 바 있다. 그러한 점에서 원효의 별기는 주목해야 할 문제이고, 거기에서 무엇을 말하였는지 생각하여야 한다. 원효는 대당의 불교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그것이 마명의 생각을 넘어서는 새로운 논리와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마명이 말한 것에 대한 간단한 발언을 체계적으로 확장하면서 자신만의 독창성으로 발전시키는 구절에 대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도록 한다. 간결하게 일심이문은 일체제법을 포괄하고 있다는 말을 마명이 했다. 이에 대해 원효가 주석을 하고 본질적인 논의를 확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것이 다음과 같은 자신의 견해 속에서 명철하게 녹여져 있다.

---

12) 은정희 역주, 『대승기신론소별기』, 일지사, 1991, 참조.

www.kci.go.kr

別記 眞如門是諸法通相 通相外無別諸法 諸法皆爲通相所攝 如微塵是瓦器通相 通相外無別瓦器 瓦器皆爲微塵所攝 眞如門亦如是 生滅門者 卽此眞如是善不善因 與緣和合變作諸法 雖實變作諸法 而恒不壞眞性 故於此門亦攝眞如 如微塵性聚成瓦器 而常不失微塵性相 故瓦器門卽攝微塵 生滅門亦如是 設使二門雖無別體 二門相乖不相通者 則應眞如門中攝理而不攝事 生滅門中攝事而不攝理 而今二門互相融通 際限無分 是故皆各通攝一切理事諸法 故言二門不相離故[13](진여문은 이것이 바로 제법의 통상이며, 동상의 밖에 다른 제법이 없다. 제법이 모두 통상에 의해서 포섭된다. 이것은 마치 작고 티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이 기와와 그릇이 통상이며 통상 이외에 달리 기와와 그릇이 없어서 기와와 그릇이 모두 작고 티끌에 의하여 포섭되는 것과 같이 진여문이 또한 이와 같다. 생멸문은 곧 이 진여가 바로 선과 불선의 인이며 연과 화합하여 제법을 만들어낸다. 비록 실이 변하여 제법을 만들기 때문에 항상 진성을 괴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문에서 또한 진여를 포섭하지 않는다. 마치 작은 티끌의 본성이 모여서 기와와 그릇을 이룩하지만 항상 작은 티끌의 본성의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와와 그릇의 문은 곧 작은 티끌을 포섭하며 생멸문 또한 이와 같다. 설사 이문이 비록 별도의 본체는 없으나 이 문은 서로 어긋나서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인 즉 응당 진여문 가운데 이치를 포섭하고 사상을 포섭하지 않는다. 생멸문 가운데 사상을 포섭하고 이치는 포섭하지 않는다. 곧 이제 이문은 서로 융섭하고 통하여 제한이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까닭으로 모두 각각 일체의 이사의 제법을 통섭한다. 그러므로 이문이 서로 여읜다고 말하지 않는다.[14])

위의 별기는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가? 그것은 곧 총섭한 일체법이 이문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이고 이 둘이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간결하게 말하였는데 이에 대한 별기의 내용은 당나라 불교 전체를 꿰뚫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 대목의 근간은 이사철학이다. 이사철학의 근간은 당나라 화엄학이 보여주는 최고의 논리 가운데 하나인데 이를 받아들여서 이를 이와 사, 진

13) 元曉, 『大乘起信論疏』 第二卷.
14) 은정희 역주, 『대승기신론소별기』, 일지사, 1991, 참조.

www.kci.go.kr

여문과 생멸문의 대립으로 갈라서 말하고 있다. 사종법계의 논리 틀을 가지고 와서 이와 사의 관계를 핵심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진여문은 이를 통섭하고 사를 취급하지 않고, 생멸문은 사를 통섭하고 이는 통섭하지 않는다.

이사의 제법을 일심의 관점에서 통섭하게 되면 이사가 서로 준별되지 않고 이가 곧 사가 되고, 사가 이가 된다. 사는 현상이고 작용의 실체이다. 이와 달리 사는 이치이고 원리이다. 원리와 현상의 관련이 연결되면서 이들의 깊은 연관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사철학이 연결되고 이사철학의 발전적인 면모를 도입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바로 원효 철학의 핵심적인 진전이다. 이사철학의 전통 속에서 마명의 철학이나 사상이 어떻게 자리할 수 있는가 하면서 자신의 깊은 창조로 이어가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사철학에서 이는 본체이고 원리이다. 사는 생멸을 말하는 현상적인 작용이다. 이 둘이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 깊은 성찰이 있었다. 이른 바 현상만의 세계, 원리만의 세계, 원리와 현상이 서로 무애한 세계, 현상과 현상이 서로 무애한 세계의 핵심적인 면모가 바로 이것이다. 마음이 구현하는 것이 바로 일심이고 일심에 의해서 우주 만유를 구성하는 것을 융섭하여 사종법계를 이룩한다고 말한다.

청량이 주석한 「신경소(新經疏)」에 이르기를, 일진법계는 총괄적으로 만유를 해섭(該攝)하니 곧 일심이다. 그러나 마음이 만유를 융섭하여 문득 사종법계를 이룬다. 첫째는 사법계(事法界)이니 계는 분(分)의 뜻이다. 낱낱이 차별하여 분제가 있는 까닭이다. 둘째는 이법계(理法界)이니 성(性)의 뜻이다. 무진사법(無盡事法)이 동일성인 까닭이다. 셋째는 이사무애법계(理事無碍法界)이다. 성과 분의 뜻을 갖추어 성분무애인 까닭이다. 넷째는 사사무애법계(事事無碍法界)이니 일체 분제가 낱낱이 성과 같이 융통하여 중중무진이다.[15] 이것이 청량 징관이 말한

15) 法界 清涼新經疏(圭峰注 『法界觀門』 引 『華嚴經普賢行願品疏』)云 “統唯一真法界 謂總該萬有 即是一心 然心融萬有 便成四種法界 一事法界 界是分

www.kci.go.kr

사종법계의 원래 뜻이며, 모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청량의 주석에 입각하여 이를 현재적인 관점에서 풀어보면 네 가지 법계는 다음과 같이 해명이 가능하다. 사법계는 모든 차별이 있는 세계를 일컫는다. 사(事)는 현상·사물·사건 등을, 계(界)란 분(分)을 뜻한다. 낱낱의 사물은 인연에 의해 화합된 것이므로 제각기의 한계를 가지고 구별된다. 개체와 개체는 공통성이 없이 차별적인 면만을 보이게 된다. 이를 사법계라고 말한다.

이법계는 우주의 본체로서 평등한 세계를 지칭한다. 이(理)는 원리·본체·법칙·보편적 진리 등을 일컬으며, 계(界)란 성(性)을 가리킨다. 궁극적 이(理)는 총제적 일심진여라고 할 수가 있으며, 그것은 공(空)이며, 여여(如如)이다. 우주의 사물은 그 본체가 모두 진여라는 것이니 개체와 개체의 동일성, 공통성을 지적하여 일컫는다.

이사무애법계는 이와 사, 즉 본체계와 현상계가 둘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걸림이 없는 상호관계 속에 있음을 지칭한다. 성분(性分)의 무애로서 사건과 원리와 완전 자재하고 융섭하는 경계이다. 구체적인 사건은 어떤 추상적 원리의 표현이며, 원리는 현현하는 사건의 증거이다. 이와 사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연결된다.

사사무애법계는 개체와 개체가 자재 융섭하여, 현상계 그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라는 뜻이다. 제법은 서로 서로 용납하여 받아들이고, “상입상용(相入·相容)” 하나가 되어 “상즉(相卽)” 원융무애한 중중무진연기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곧 화엄의 법계연기이다. 체상으로 이사상즉이기에 사사상즉이며, 작용에 있어서도 이사상입이기에 사사상입이 자연스럽게 구현된다.

원효는 『대승기신론』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원용하면서 이들이 진여와 생멸의 차원에서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말한 바 있다. 일심

義 一一差別 有分齊故 二理法界 界是性義 無盡事法 同一性故 三理事無礙法界具性分義 性分無礙故 四事事無礙法界 一切分齊事法 一一如性融通 重重無盡故”

www.kci.go.kr

진여문과 일심생멸문에서 이와 사의 관계가 서로 포섭하는 단계를 해명한 바 있다. 그것은 위의 기록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와 사가 서로 관련을 맺고 이는 진여에 사는 생멸의 차원에서 해명된 바 있다. 일심의 차원에서 진여문과 생멸문이 하나로 귀일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문에서 이만 통섭하고 생멸문에서 사만 통섭하는 것을 합치면 일심의 차원에서 이와 사가 서로 통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치 이사무애법계의 차원에서 일심진여생멸문이 구현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원효는 이사철학의 본질을 꿰뚫고 이를 일심이문의 원리에 적용하여 이와 사의 관계를 들어서 이를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사가 서로 일체만법을 통섭하는 관계로 전환하는 것에서 이사철학의 본질과 원효의 생각, 마명의 『대승기신론』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원효의 이사철학이 일심이문의 진여문과 생멸문에 포섭하여 이를 드러내는데 이사무애법계의 경지를 드러내는 것에 적실하게 적용되었다.

Ⅲ. 마무리

원효의 주저는 『판비량론』, 『십문화쟁론』, 『대승기신론소별기 기회본』, 『금강삼매경론』 등이 있다. 더 원초적으로는 「발심수행장」의 결단과 각성이 더욱 소중한 구실을 하였다. '단 음식을 먹어 자신의 몸을 아껴 길러도 이 몸은 허물어지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비단옷을 걸쳐 입고 자신의 몸을 지켜 보호해도 목숨은 반드시 끝마침이 있다'(喫甘愛養 此身定壞 着柔守護 命必有終)이라고 깨달았다. 이는 깨달음을 증득한 오도송보다 더욱 절실하다. 그 깨달음이 이러한 저작과 연결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판비량론」의 잔간을 통해서 우리는 높은 논리를 구가하고 동시에 당나라의 최신 학문을 몸소 아는 그의 석명한 이해력을 다시 평가하게 된다. 소명한 원효도 이 인명논리학의 저작이 그렇게 쉽사리 해

www.kci.go.kr

독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 대목에서 '증득하여 이룩한 이치에 대해 생각하는 일은 지극히 어려우나 내 웃으며 물리치지 않고 미력이나마 쉽사리 풀이하였네 이제 성스러운 불전에 의지하여 그 한 쪽 모서리를 제시하니 바라건대는 부처의 이치가 소통하여 삼세에 유통되기를'(證成道理甚難思 自非笑却微易解 今依聖典擧一隅 願通佛道流三世)라고 하였다. 깨달음이 논리를 만나서 증득되었다.

여러 불교의 사상적 조류를 간파하고 화쟁을 제시하면서 통불교의 논리를 개척하였다. 그 저작이 『십문화쟁론』이다. 논리적 엄격함과 함께 불교의 제 논리를 하나로 합치는 구체적인 통불교의 방식으로 화쟁을 선택하였다. 십문으로 구분하였으나, 그러한 것은 형식적인 것일 뿐 비유와 논리의 언술을 만나서 새삼스럽게 변혁되고 발전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화쟁은 여러 쟁론을 조화하는 것이므로 통전불교와 화백가쟁명의 이치를 섬부하게 다루었다.

『대승기신론소별기기회본』에 이르러서 주석과 사상의 자유가 함께 결합하면서 화합이라고 하는 것의 실재가 무엇인지 해명하려 했다. 마명보살의 저작이 워낙 탁월한 것이지만 원효는 소와 별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모색하였다. 그 저작은 원효의 통불교적 관점을 모두 하나로 합치는 위업을 달성한 저작이다. 역대 논사들의 주석을 한꺼번에 비판하면서 무엇이 통불교의 본질인지 명확하게 하였다.

마침내 『금강삼매경론』에 이르러서 원효의 독창성이 높은 차원에서 탁월하게 구현되었다. 있음과 없음, 중도와 연기, 언설과 가명이 하나로 통일되는 생성과 극복의 논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지를 열었다. 없음이 있음이고, 있음이 없음이며, 이것과 저것이 연결되고 그것이 준별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말로 하는 진여와 말을 떠난 진여의 관계도 새삼스럽게 해명하였다. 『대승기신론소별기기회본』에서 말한 것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논리를 진정하게 구현하였다. 다음의 말을 극복하였다는 뜻이다.

www.kci.go.kr

若此心體一向生滅直是染心 則非難了 又若一向常住唯是淨心 亦非離知 設使體實淨而相似染者 亦可易解 如其識體動而空性靜者 有何難了 而今此心體淨而體染心動而心靜 染淨無二 動靜莫別 無二無別 而亦非一 如是之絶 故難可知[16] [만약 이 마음의 본체가 한결같이 생멸하기만 하여 단지 염심일 뿐이라면 곧 요달하기 어렵지 않다. 또한 만약 이 마음의 본체가 한결같이 항상 머무르기만 하여 오직 깨끗한 마음뿐이라면 또한 알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설사 본체는 깨끗하나 상이 물들 것 같은 것은 또한 쉽사리 이해할 수 있다. 만약 그 식의 본체는 움직이나 공의 본성은 고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무슨 요달함에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러나 이제 이 마음의 본체는 깨끗하면서 마음의 본체가 물들어 있으며, 마음이 움직이면서 마음이 고요하여 염정이 둘이 없으며, 움직임과 고요함이 분별됨이 없다. 염정의 두 가지가 없고, 동정의 준별이 없으면서 또한 하나도 아니니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시비와 분별의 언설을 끊었으므로 가히 알기가 어렵다.]

위의 인용문은 철저하게 마명의 논설을 해명하는데 자신의 논리와 독창적인 사고를 기울이고 있다. 의존적이지만 독창적이고, 독창적이지만 마명의 말에서 압도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자신만의 언설을 시작하고 있으며, 그러한 면모는 이미 표종체를 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구(四句)의 논리를 극복하면서 여전히 아리송한 대목이 없지 않다.

마침내 『금강삼매경론』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뒤집고 극복하여 나아갔다. 그것은 사상의 진화이고 질적 비약이고 자기 혁신의 과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菓種不一 其相不同故 而亦不異 離種無菓故 又種菓不斷 菓續種生故 而亦不常 菓生種滅故 種不入菓 菓時無種故 菓不出種 種時無菓故 不入不出故不生 不常不斷故不滅 不滅故不可說無 不生故不可說有 遠離二邊故 不可說爲亦有亦無 不當一中故 不可說非有非無 故言離諸四謗 言語道斷[열매와 씨앗은 하나가 아니다. 그 모양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열매와 씨앗은 또한 다른 것이 아니다. 씨앗을 떠나서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씨앗과 열매는 끊어진 것은 아니다. 열매를

16) 元曉, 『大乘起信論疏記會本』 第四卷.

www.kci.go.kr

이어서 씨앗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항상한 것은 아니다. 열매가 맺어지면 씨앗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씨앗은 열매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열매가 맺을 때면 씨앗은 없기 때문이다. 열매는 씨앗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씨앗이 맺힐 때면 열매는 없기 때문이다. 들어가지도 않고 벗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생기지도 않으며, 항상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멸하지도 않는다. 멸하지 않으므로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생기지 않으므로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멀리 두 변을 여의었으므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한 중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은 사구의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왔으나, 오히려 섬부한 비약과 고양이 있다. 그것이 바로 원리이변과 불당중일이라고 하는 비유적 개념이다. 두 변을 여의었으므로 하나이면서 동시에 한 가운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둘이다. 둘과 하나의 관계를 새롭게 변혁하면서 원래의 대의에서 했던 말을 날카롭게 가다듬었다. 중변의 대립적 개념을 새롭게 발전시켜서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라고 하는 것을 원용하게 변혁하였다. 이것이 창조성의 결정적 증거이다. 대의에서 말한 '이변이비중'(離邊而非中)과 '융이이불일'(融二而不一)을 통합적 표현을 색다르게 변혁하고 있다.

원효가 과연 창조적인 사고와 자신만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이제 정리해야 한다. 통불교를 집약하고 논리를 개발하고 새로운 사상을 전개하는 것이 과연 이룩되었는지 의문이 적지 않다. 원효는 자신의 말을 바로 하지 않고 남의 경전에 빗대서 하기 때문에 온전한 창조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그러한 면모가 없지 않다. 의존적이고 바로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남의 말에다 덧대서 하는 것이 기본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원효가 주석학에서 그 경지를 보이는 것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원효는 자신의 생각이 없이 주석을 하지 않았다. 그 경전을 두루 휘어잡고 이 경전의 요체와 의미를 말하는데 자신의 창조력을 십분 발휘하였다. 같은 주석을 달았어도 왜 원효의 주석만 살아남았는지 생각할

www.kci.go.kr

필요가 있다. 그것은 원효의 말이 설득력이 있고, 누가 보아도 자신의 말을 하면서 남의 말을 핵심적으로 꿰뚫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장기를 발휘하면서 멋지고 선명한 글쓰기를 통하여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음이 드러난다.

원효의 창조력은 경전에서 주어진 생각을 넘어서서 당시 최첨단의 이론을 휘어잡고 다른 것과 쟁론하면서 쟁론의 쟁론을 넘어서는 포괄성을 주장하고, 아울러서 경전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물이 흐르듯이 명료한 글쓰기를 하는 것이 기본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원효의 창조력은 간명하면서도 복잡하고, 복잡하면서도 간명한 글쓰기를 하는 것이 기본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전의 다양한 면모를 북돋우고 경전의 이면을 사로잡아 생각의 폭을 확대하고 적실한 비유와 적절한 의미를 환기하는 글쓰기의 기교는 다른 이에게서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논문접수일: 2019.12.2 / 심사개시일: 2019.12.3 / 게재확정일: 2019.12.16

www.kci.go.kr

<참고문헌>

『老子』 第二十五章.
元曉, 『十門和諍論』 序文.
元曉, 『金剛三昧經論』 述大意.
元曉, 『涅槃經宗要 』大意.
元曉, 『大乘起信論疏 』第一卷.
法界, 『淸涼新經疏』.
조명기 외, 『국역 원효성사전서』 1-6, 보련각, 1987.
은정희 역주, 『대승기신론소별기』, 일지사, 1991.
은정희, 송진현 역주, 『금강삼매경론』, 일지사, 2000.
김성철, 『원효의 판비량론 기초 연구』, 지식산업사, 2003.
조동일, 『창조하는 학문의 길』, 지식산업사, 2019.

www.kci.go.kr

Abstract

A Consilience-Buddhism(通佛教) Originality of Wonhyo(元曉) Writing

Kim, Heon-Seon

Wonhyo's originality lies in his writing. The great problem-sense of handling the problem greatly while keeping the writing precise was a valuable He did not study abroad, but stayed at Haedong Shilla to explore the end of his studies and try to write the most difficult. Difficulties are unaccustomed, and when they get used to them, they create the secrets of a changes. Wonhyo did not do overlapping writing, but expressed his own ideas, and made writings that were material for life and death. Without transcending life and death, he enjoyed the vivid expression of his writing in which life was death, death was life, not one, but both.

Wonhyo did not comment without his own thoughts. He grasped the scriptures and used his creativity to describe the elements and meanings of the scriptures. Even if he had the same annotation, he needs to think why only Wonhyo's notes survived. It was a possible territory because Wonhyo 's words were persuasive and, no matter who might look at them, were key to what others said. It turns out that he has pioneered new heights through his wonderful and clear writing while exercising his organs.

Wonhyo's creativity goes beyond the ideas given in the scriptures, argues for inclusiveness beyond the arguments of the cutting-edge theories and disputes with others, and writes as clear as water flowing through the core of the scripture. Wonhyo's creativity is a basic characteristic of writing simple, complex, and complex. The art of writing, which encourages various aspects of scripture and captures the reverse side of scripture, expands the width of thought and evokes the correct analogy and proper meaning, is something that cannot be found in others.

www.kci.go.kr

【Key words】 Originality of Wonhyo Thought, Consilience-Buddhism(通佛敎), Unified Logic, Tongjeon Buddhism(統典佛敎) and Isa Philosophy(理事哲學).

www.kci.go.kr